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내달 개관

### 익산시, 건강키움실 · 체력측정실 · 주민참여 동아리방 · 운동장비 등 마련

익산시가 주민 건강을 책임질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송하동 푸른솔커뮤니티센터에 다음달 문을 열고 맞춤형 건강프로그램과 어린이건강체합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사업비 4억1,700만원을 투입해 송하동 푸른솔커뮤니티센터 건물 3·4층에 총면적 730㎡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았다.

3층에는 건강키움실, 체력측정실, 주민참여 동아리방, 신체활동 프로그램실 등을 마련하고 4층에는 어린이건강체합관을 조성했다. 최신식 운동장비 19종 75점과 체력측정장비 8종을 갖춰 체계적인 건강관리기반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미취학 아동(어린이



건강체합관) △성인(심뇌혈관·비만관리) △노인(치매 예방 관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주도형 건강 동아리와 만성·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8개 기본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특히,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북 최초로 '어린이 건강체합관'을 운영한다.

김연 · 절주, 구강보건 손씻기, 식품·영양, 신체활동, 생명탄생 등 6개 테마존으로 구성해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돕는다. 또한 증강현실로 만나는 실내운동 플랫폼 '디딤' 등 어린이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갖췄다.

센터는 다음달 18일부터 2주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가진다. 운영 방법을 최종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후 4월에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건강체합관 이용 대상은 4~9세 아동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063-859-7503)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22일 군산월명공원(제1수원지) 일대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 '아동 성폭력 예방 실천 다짐'

### 군산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 전개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22일 군산월명공원(제1수원지) 일대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정부가 지난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 의지를 다지하고자 매년 2월 22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성문화센터와 연합하여 아동 성폭력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시청소년수련관은 아

동 성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 아동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신정아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아동 성폭력 예방은 개인이나 특정인의 역할이 아닌 지역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뤄내야 할 과제이며 시민 모두가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성교육 및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은 물론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민간 공동주택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1일 군산에서 공사 중인 13개 단지 민간 공동주택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군산시 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 인력 고용 증대를 주문하는 동시에,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과 관계자들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가 끝난 뒤엔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이자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인 안홍섭 교수의 맞춤형 특강이 진행됐다. 안교수는 건설 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실효적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방안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26일부터 2차 접수

익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 월세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2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를 매달 2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9~2005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는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7,067원)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4,657원), 재산 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의료공백 밀착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현장 대응 강화

익산시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신속 대처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는 흑시 모를 의료서비스 불편 해결을 위해 시민 소통 창구를 마

련했다. 진료 예약 취소나 수술 연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익산시보건소(063-859-4800, 482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의료계 최전선인 응급실과 의료기관별 당직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의료 체계는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보건소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긴급 퇴원 환자를 위해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일반의원이 휴진에 동참할 것에 대비해 연락원을 통한 우선 점검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확보된 휴진 정보를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진우 익산시보건소장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2024 시민안전보험' 가입 완료

군산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상황 발생 당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2월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된 2024년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보장 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를 새롭게 추가하여 총 24개 항목에서 보장

이 가능하다. 또한 보장항목 중 8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하였다.

보장한도가 확대된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이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수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보장 개시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낙상 끼임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누구나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및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가입·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이춘석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경선 승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춘석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향후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다.

이 예비후보는 "시민들과 권리당원들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과 당원의 기대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본선에서도 겸손하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선기간동안 '이춘석은 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힘있는 후보,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익산발전을 앞당길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중진 필요성과 인



물문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에 매진했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결심 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매주 밥값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선거로 이끈 것이 승리를 견인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함께 경선을 치른 김수홍 후보와, 이에 앞서 경쟁을 펼친 고상진, 성기청 후보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진행되는 본선에서도 경쟁했던 3명의 후보는 물론이고, 우리당의 시·도의원들과 원팀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춘석 예비후보는 익산시 갑 선거구에서 제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